

# 광양시 별빛 캠핑 즐기고 ‘굿즈’ 받는다

광양시가 배알도별빛야영장을 중심으로 캠핑·체험·미식을 결합한 참여형 관광프로그램 ‘광양관광 미션투어-별빛캠핑미션’을 선보이며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장한 배알도별빛야영장의 이용 활성화와 심진강권 체류관광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별빛캠핑미션’은 타 지역 거주 관광객이 광양의 캠핑·체험·미식 콘텐츠를 즐기며 미션을 수행하면 별빛 캠핑 굿즈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기간은 굿즈 소진 시까지이며, 타 지역 거주 내외국인 관광객 100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팀은 1명부터 최대 5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배알도별빛야영장 체류관광 프로그램 운영 타 지역 거주 내·외국인 관광객 100팀 대상

참여 희망자는 ‘MY광양’ 앱 가입 후 디지털 광양시민 등록을 완료하고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과 접수는 모두 ‘MY광양’ 앱을 통해 진행되며, 사전계획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승인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승인이 제한된다.

참가자는 총 3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첫 번째 미션은 배알도별빛야영장 이용이다. 예약확인서 또는 영수증 등 이용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미션은 광양짬뽕이 ‘심진강

별빛스카이’ 체험 인증이다. 예매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참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기상 악화 등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정 관광지 2곳 방문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 대상은 광양시가 정한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이며, 배알도 섬 정원·별해는다리·해맞이대리는 제외된다. 축제장은 축제 기간 내 방문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세 번째 미션은 배알도 인근 태인동·진월면 소재 음식점 또는 카페 이용 인증이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증빙자료는 국제청 신고용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

수증만 인정된다.

굿즈는 신청 순으로 선착순 제공되며, 동일한 증빙자료로 광양 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난 3월 개장한 배알도별빛야영장은 커리반 10대를 포함한 총 100명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 66인이 운영 중이다. 야영장에는 샤워장, 개수대, 세족장, 커피 센터 등 편의시설과 버스킹 공연장, 네트체험시설, 어린이 집라인, 바다분수 등 체험·휴식시설이 마련돼 있다. 예약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캠핏’에서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별빛캠핑미션은 캠핑과 체험, 지역 미식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이다”며 “배알도와 심진강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환적 허용 검토해야”

### 여수상의, 중동 정세 불안 등 공급망 위기 대응 국내외 항만 사례 활용 경쟁력 강화 방안 건의

여수상공회의소가 글로벌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여수항의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수항 D-1 정박지의 해상환적(STS) 허용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0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에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환적 허용

및 제도 정비’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상의는 이번 건의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원료 조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일부 기업들이 러시아산 납사를 긴급 도입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상 물류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여수항의 해상환적(STS) 작업은 W정박지와 D-2 정박지에 집중되면서 과밀화와 대기시간 증가, 해상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D-1 정박지는 수심과 해역 조건이 양호해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수용이 가능하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여수상의는 D-1 정박지 활용이 새로운 위험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STS 기능을 분산 배치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님보-저우산항 등 주요 항만들이 STS를 활용해 환적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울산·부산항 및 광양항에서 STS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D-1 정박지 활용은 여수산단의 원료 수급 안정과 국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과제이다”며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 기준을 전제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장흥,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장비 지원

### 방탄복·LED 안전조끼 보급

장흥군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탄복과 LED 안전조끼를 지원했다.

이번 안전장비 지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멧돼지로 오인해 동료를 사격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방지단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군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36명을 대상으로 방탄복 7벌과 야간 식별이 가능한 LED 안전조끼 36

벌을 구입·배부했다.

특히 LED 안전조끼는 야간 포획 활동 시 단원 간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인 사격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탄복 역시 돌발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비로 활용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교육과 장비 지원을 지속 확대해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진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 곡성, 군민 영화관람 활성화 선착순 관람료 할인행사 진행

곡성작은영화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2026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관람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잠재된 영화관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전국 영화관 관람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곡성작은영화관 이용객은 성인 기준 기존 관람료 7000원에서 6000원을 할인받아 1000원에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온라인 예매와 현장 예매 모두 적용된다. 온라인 예매는 1인당 최대 2매까지 가능하며, 현장 예매는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대리 구매와 중복 수령은 제한된다.

곡성작은영화관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오후 1시 이후 전화(061-363-7789)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작은영화관은 군민들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할인 행사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개최되는 곡성세계장미축제를 함께 즐기며 지역 문화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순천만 복원습지에서 함께 관찰된 겨울 철새 흑두루미와 여름 철새 저어새(왼쪽), 꼬마물떼새 가족의 모습.



사진제공=순천시청

## ‘복원으로 돌아온 생명’ 순천만 변화 눈길

### 시, 국가정원 조성·정주환경 개선...세계적 생태도시 자리매김

순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순천만을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2006년 순천만은 국내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되며, 국제적으로 보전해야 할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았다. 같은 해 시작된 세계 철새의 날은 매년 5·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중심으로 기념되는 국제 캠페인으로, 철새와 이동경로,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의 순천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1990년대 순천만은 골재채취, 하천정비, 주변 개발 압력 속에서 훼손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랬던 순천만이 전환기를 맞은 것은 시민과 행정의 이 공간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비결 생태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람사르습지 등록 이후 순천시는 철새

서식지 확대, 흑두루미 먹이터 조성, 전봇대 철거, 친환경 농업, 주민 참여형 갈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순천만은 흑두루미, 저어새, 큰고니, 도요물떼새 등 다양한 철새가 찾아와 머무는 생명의 정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년간 순천만은 그 약속을 지켜 왔다. 갯벌을 메우는 대신 보전에 왔고, 철새의 비행을 방해하는 시설을 견여냈으며, 사람의 접근을 조절해 생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환경 규제자 생태관광의 기반으로 키운 전략이었다.

그 변화는 최근 순천만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복원습지에는 복상하지 못한 흑두루미 한 쌍이 여전히 머물고 있으며, 연꽃복원습지에는 장다리물떼새가 찾아왔다. 흑두루미와 저어새가 함께 관찰되는 장면도 포착됐고, 주차장 인근에서는 꼬마물떼새의 번식이 확인됐다.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한 조류 관찰 기록을 넘어선다. 새가 돌아오고, 동자가 생기고, 서로 다른 종이 같은 습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지난 20년간 이어 온 복원과 보전 정책이 실제 생명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천만 보전의 특별한 점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순천만을 터로 잡고 살아온 주민들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전의 주체로 바라보며 순천만 관리에 함께 참여시켜 왔다.

주민들은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친환경 농업, 철새 지킴이 활동, 갈대 베기, 갈대울타리 설치, 환경정비 등에 참여하며 순천만의 생태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순천만 보전은 생태계만 살린 것이 아니라 도시의 방향도 바꿨다. 시는 순천만 보전, 국가정원 조성, 생태관광, 주민 참여, 정주환경 개선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왔다. 그 결과 순천만은 순천을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가 됐고, 국가정원은 도심과 습지 사이를 잇는 생태적 전이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 고흥물, ‘초여름을 담다, 고흥매실’ 예약전

### 27일까지 무료배송·20% 할인 제공

‘고흥물’이 초여름 대표 제철 농산물인 고흥 매실의 본격 출하 시기에 맞춰 ‘초여름을 담다, 고흥매실’ 예약전을 진행한다.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며, 행사 기간 고흥물에서 고흥산 매실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료배송과 함께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 고흥물에서 매실을 주문한 고객에게는 ‘재주문 10%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해 기존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고 고흥물 충성 고객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약 상품은 매실의 신선도와 품질을 고려해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고흥물은 수확 시기에 맞춘 예약 판매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선한 제철 매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에는 사전 수요 확보를 통해 판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물은 지난해 매실 판매를 통해 고흥산 매실의

시장 경쟁력을 확인한 바 있다. 대형 유통채널 상품기획자(MD) 평가에서 고흥매실은 타 지역 대비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전국 소비자 대상 선호 효과를 거뒀다. 또 기존 도매 중심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판매, 기업 간 거래(B2B) 공급, 대형 채널 판촉 등으로 경로를 넓혀 고흥 매실의 판로 다변화 가능성을 높였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보성, 지역 상권 결제시스템 디지털 전환 추진

보성군은 6월 중순까지 보성사랑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착(chak)’ 앱 기반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조폐공사 주관으로 진행되며,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 1085개소를 대상으로 ‘착(chak)’ 앱 기반 모바일 결제시스템 설치를 무료로 지원한다.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성사랑상품권을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결제 절차 간소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설치자는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착(chak)’ 서포터즈가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진행한다.

서포터즈는 결제시스템 설치 지원과 사용 방법 안내 등 현장 중심 지원 역할을 맡아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은 보성사랑상품권 사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이 더욱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